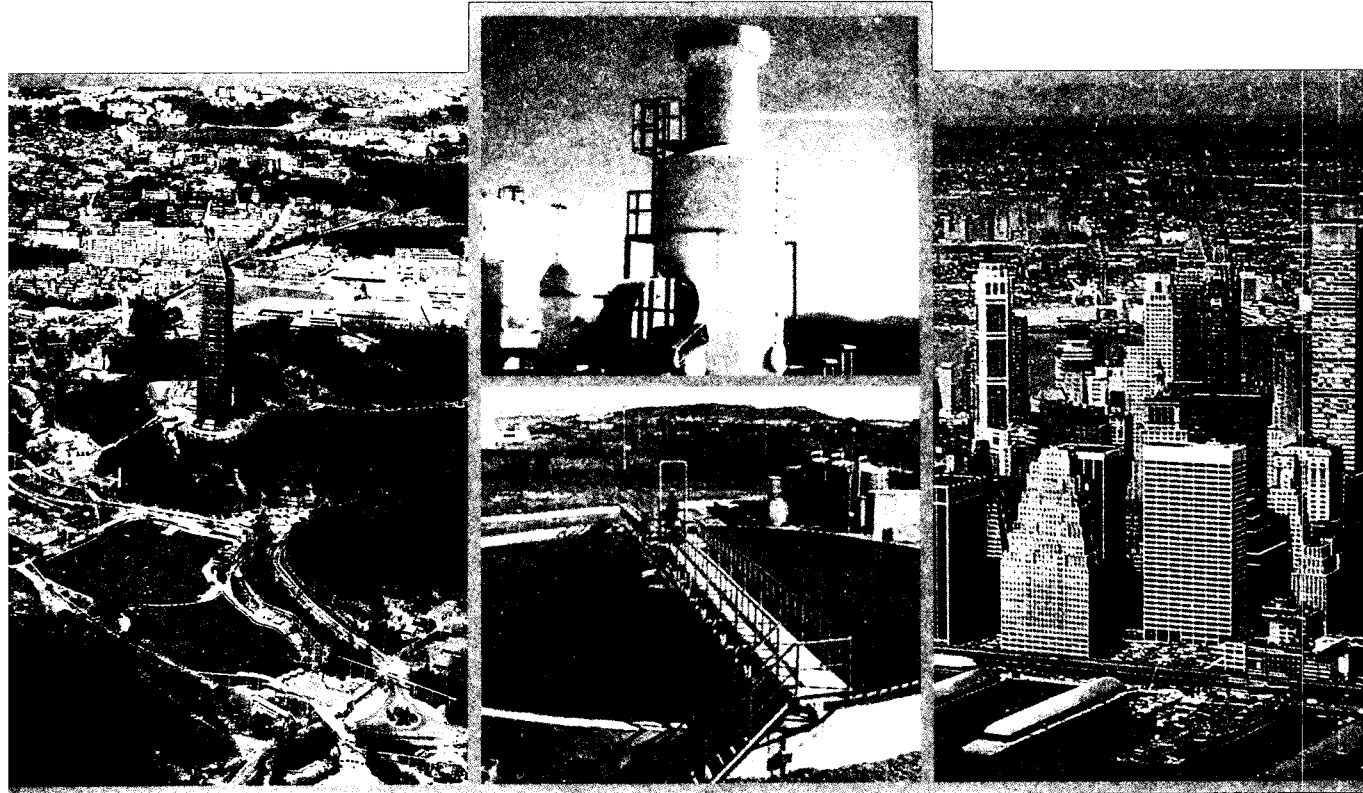




최근 환경관련 국제동향



그린라운드, 환경기술의 수출, 청정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과 관련한 미국의 환경정책 동향과 환경기본법의 시행, 일본 기업체의 환경관심 제고 방안 등 일본의 환경정책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의 환경정책 동향

미국은 지난 '94년 4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GATT 무역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 환경위원회의 설치를 지지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이 GATT 회원국들을 설득하여 그러한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NAFTA에 설치된 환경위원회와는 달리 그 권한이 크게 제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환경문제와 관련된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벌금을 부과시키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미국 공화당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움직여 나가도록 산업체에 대한 규제를 없애 나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았었는데 클린턴 행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산업체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 해외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

**미국은 지난 94년 4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GATT 무역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
환경위원회의 설치를 지지했고, 환경기술산업이 미국경제를 다음세기로
이끌어가는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Win-Win-Win 전략을 발표했다.**

예로 70년대에 미국은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엄격히 규제한 최초의 국가였는데, 이에 힘입어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세계의 대기오염 제거장치 기술시장을 지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미국 상무장관에 의하면 현재 국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시장은 연간 2,000~3,000억불 규모이나 2000년까지는 6,000억불 수준으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말 환경기술의 거대한 잠재적 국제시장에서 미국회사들이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브라운 장관은, 환경기술산업이 미국경제를 다음세기로 이끌어가는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Win-Win-Win 전략, 즉 환경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기고,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 함으로써 이기며,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이기게 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계획은 환경기술수출자문위원회와 정보 Clearing house를 미국내외에 설치할 것과 미국의 주요 해외무역사무소에 환경기술 전문가를 배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과 협회, 이익단체등과 함께 지역 환경기술수출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구성중에 있다.

1990년에 개정된 대기기본법에 의해 금년부터 100명 이상의 고용원을 가진 기업체들은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입법화하여 사람들의 출·퇴근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뉴욕, LA, 시카고 등 10개 대도시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 회사들의 평균 탑승자 비율(AVR)은 현재 약 1.1 정도인데, 이는 대부분의 고용원들이 승용차를 혼자서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은 평균 탑승자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입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체들은 근무일수를 줄이거나 도보, 자전거에 의한 출·퇴근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된 수단은 카-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체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직원들이 함께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카-풀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마련, 카-풀에 대한 주차우선권과 무료 휘발유의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으며, 일찍 또는 늦게 퇴근해야 할 긴급상황이 생기면 이를 위해 회사가 자동차를 특별히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버스·전철 등 대중 교통수단이 있는 곳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승용차 운행은 오래된 전통 또는 습관의 문제로서 쉽게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가 적절한 대중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 그리고 동 입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효과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연료의 선택에 있어 천연가스의 선호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고 산업체 지원을 위해 시장 장애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에너지성이 작성한 장기 청사진에서 1차적인 연료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이점을 자세히 밝히고, 에너지의 보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감소를 재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 특히 국내 소비량의 절반이나 되는 수입석유에 의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승용차 구매시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의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재생가능(Renewable) 에너지자원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i)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오염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없애므로서 대체 에너지원의 상대적 비용의 경감, ii) 재생가능 에너지의 선택을 저해하는 전기가스 이용계획, iii)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 상업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마련등 3가지 중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태양력, 풍력,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는 현재 미국 에너지 수요의 8%에 불과하며 현 추세로 보면 9%로 증가되는데에 2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에는 큰 상품 일수록 좋은 것이었는데 현재는 상품이나 포장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90년대 환경주의 물결과 활발하지 못한 경제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고, 주변환경을 쓰레기로 오염시키지 않는 상품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상품포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과도한 포장껍질이 벗겨지고 있는데 아주 작아진 비누나 기저귀, 화장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고 건실한 상품은 슈퍼마켓의 면적을 적게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들의 포장비용과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2 일본의 환경정책 동향

일본은 지난 '93년 11월 새로운 환경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제와 보다 엄격한 오염규제 등을 통하여 동 법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중에 있다. 동 위원회는 금년 3월까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패키지로 제출할 계획인데 해외정책과 상업적 모티브에 대한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환경문제는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이 지구환경정책과 환경기술의 판매에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의회는 작년 10월, 통상산업성(MITI)등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부처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확고한 규제보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의 약화된 환경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4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환경세와 환경평가기준에 관한 입법을 포함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일본 환경청은 CO₂ 배출을 규제하고 태양에너지의 이용 및 에너지 절약기술 촉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소비에 대한 탄소세부과를 제안한 바 있으나, 통상산업성을 비롯한 관계부처로 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통상산업성은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산업의 국제적 이동을 야기하게 되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한편 환경청은 당초 동 법안 제안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환경평가를 의무화 시키도록 추진하였으나, 건설성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보다 매우 약화된 동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체들은 최근 새로운 환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환경기준을 강화코자 하는 정부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 각종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622개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업의 70%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division)를 두고 있으며, 반 이상의 기업이 환경담당 이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일본기업들이 청정기술을 개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바 있다. 또한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환경연구를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경 전력회사는 산업체의 배출가스로부터 CO₂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9백만불을 투자·연구시설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대 전자회사인 NEC는 회사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컴퓨터 칩의 세척을 위해 필요한 CRC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